

‘고기, 쌈장, 밥까지’ 식지 않는 온도...

# 어떻게 알려졌을까?... 아파트단지 속 ‘숨은 맛집’ 찾아서



연길의 모 아파트단지에서 보쌈집을 운영하고 있는 리미영씨

“재미로 시작한 일이 사람을 만나 는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연길의 한 아파트단지 가장 깊숙한 곳, 지나가는 행인조차 쉽게 찾지 어려운 이곳에서 자그마한 보쌈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풍경이다.

좁좁히 놓인 15개 테이블을 하루에도 몇바퀴씩 뛰어다니는 리미영씨(40세), 한때 SNS에서 ‘한스푼 언니’로 불리웠던 이 작은 보쌈가게 주인장 이야기는 음식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몇해전 조선족 김치 담그기 강습반을 열고 전자상거래로 김치와 반찬을 팔아오던 그녀, 연변이 왕흥 도시로 떠오르면서 외지인들 속에서도 조선족 김치가 꽤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과일씨우에 음식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며 우리 음식 알리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에 힘입어 자신감과 열정이 더 커졌죠.”

음식 콘텐츠를 만들면서 ‘된장 한스푼을 넣으세요’라는 걸걸한 목소리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류행어로 탄생하면서 수만명 팔로우를 끌어모았다. 당시 생방송 한번에 김치로 3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된장은 하루에 700~800근씩 팔리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많은 분들이 제가 담근 김치와 된장을 좋아해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이 정성을 이제는 직접 만든 보쌈으로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하여 그는 2023년말, 평소 가장 좋아하던 보쌈을 직접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원래 전자상거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손보아 간단한 인테리어를 통해 새롭게 꾸몄다. 연길의 아파트단지 가장 구석진 자리라 길가던 손님이 들어올리 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곳이 좋았다. 자신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던 곳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형 주방인 데다 동선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여기가 제가 가장 오래 머물던 공간이었고 전자상거래로 신뢰를 쌓았던 만큼 이제는 직접 만들어 올린 음식으로 그 신뢰를 이어가고 싶었죠.”



“번거롭더라도 이래야 진짜 ‘집 밥’ 같죠”

이 집 메뉴는 더없이 단출하지만 오로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돌아차야 해서 일손은 항상 딸린다.

꽃고추와 생마늘은 그때그때 썰어야 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장 작은 식재료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

“그래야 손님들이 집에서 갓 꺼내 먹는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쌈장도 손님이 주문하는 족족 즉석에서 끓여야 보글보글한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보쌈은 식어도 괜찮다’는 인식을 떨쳐내기 위해 고기도 식사 내내 식지 않게 온도를 유지하고 밥은 김이 모락 모락 나는 갓 지은 밥으로 올린다.

보쌈을 먹다 보면 항상 쌈 채소가

모자라고 더 시키면 또 남게 되는 게 고민이었는데 그녀는 손님들의 이런 고충을 헤아려 처음부터 보쌈 야채와 밥 그리고 밑반찬은 무한리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미덥지 않다는 눈빛을 보냈다. 너무 구석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녀간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이제 인기 맛집으로 거듭났다. 딱히 광고나 선전도 없었지만 손님들 사이 입소문만으로 이뤄낸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거롭지만 밥도 작은 밥솥에 여러번에 나누어 짓고 고기도 압력솥으로 급하게 삶지 않고 매일 여러가지 향신료와 육수로 푹 우려내 그 식감을 유지하려면 준비만 해도 반나절이 족히 걸린다.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식자재는 점심 한끼로 굶이 나머지는 바람에 저녁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여 이 집은 오래전부터 단골들 사이에서 ‘오직 점심에만 먹을 수 있는 보쌈집’으로 굳어졌다. 어쩌다 보니 관광객보다는 현지 단골손님이 주를 이루었고 단골이 많다 못해 자주 오는 손님들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야채 사오기부터 씻기, 썰기, 반찬 담그기까지 모든 정성을 다하면 손님들이 결국 알아주시더라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업, 확장 없는 그녀만의 철학

이 가게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가게 대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루만 쉬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있지만 위생이 첫째니까요.”

가맹 문의도 수없이 받았고 가게를 확장하려는 주변의 조언도 많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게 운영 리념은 영원한 초심이다.

“초심이란 다지기는 쉬워도 리익이 보이면 잃기도 쉬워요. 장사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게 바로 탐욕이나 성급한 마음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초심을 경건하게 지키지만 뿔가 뿔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머리를 굴리게 되면서 소홀해져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모든 걸 다 알아차립니다. 생각과 행동, 결과물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그 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작은 가게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리익보다 정성을, 속도보다 진심을 선택한 그녀의 속깊은 마음, 오늘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희기자

‘오색길림’ 전시부스

## 해구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에 등장

13일, ‘오색길림, 길림정품’을 주제로 한 길림 전시부스가 해구에서 개최된 제 6회 중국국제소비재 박람회에 등장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길림의 29개 기업이 지역 특산품을 소개했다.

길림성상무청 시장운영및소비재 촉진처 처장 진회택은 “이번 소비재박람회는 ‘제 15차 5개년 계획’의 첫해에 열리는 첫 중국 주요 전시회이며 해남자유무역항이 전 구역 봉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재박람회의 대형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길림 전시부스는 ‘오색길림’을 주제로 전시 내용을 구성했다.

‘금색길림’은 부유한 삶을, ‘은색길림’은 독특한 매력을, ‘홍색길림’은 전통적 혈통을, ‘청색길림’은 개혁과 진취를, ‘록색길림’은 생기 넘치는 활력을 상징한다. 이번 29개 길림 기업은 길림의 저력과 우세를 드러내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외부 시장 개척에 나섰다.

금색길림전시구역은 ‘금색 곡창, 길림의 우량 농산물’을 주제로 흑토지의 우수 농산물과 식품 정밀가공을 중심으로 길림 곡물산업의 핵심 우세를 강조했다.

은색길림전시구역은 ‘은빛 빙설, 길림의 경공업 제품’을 주제로 빙설 장비, 방직 신소재, 빙설문화관광, 생태 일용 화학제품 등을 선보여 빙설경제와 경공업 지능 제조의 융합을 나타냈다.

홍색길림전시구역은 ‘홍색 지능 제조, 길림의 운치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홍색산업의 전통, 문화관광 무형문화유산 및 특색 양조를 결합하여 길림의 깊은 문화적 저력을 드러냈다.

청색길림전시구역은 ‘청색 과학 기술혁신, 길림의 고급 제조’를 주제로 길림 화학공업의 신화학 소재와 바이오약제, 첨단과학기술 제품을 소개하며 디지털 경제와 하이테크 제조 역량을 강조했다.

록색길림전시구역은 ‘푸른 림해, 길림의 신선한 특산품’을 주제로 장백산 생태 물산, 접경지역 해산물 및 생태 음료에 초점을 맞추어 ‘삼림+해양’ 녹색 생태 식재료 명함을 구축했다.

‘장춘 기업 흥변·투자유치’ 상담 활동 연변서

지난 9일-10일, 연변주당위 통전부와 연변주공상업연합회는 투자유치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장춘시공상업연합회와 주동적으로 연계해 도문시에서 ‘장춘 기업 흥변·투자유치’ 상담 활동을 펼쳤다.

활동 기간 고찰단 일행은 도문시 량수진과 월청진을 방문하여 길림 성두만강제약유한회사,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 도문시 량청 활동 기간 장춘시공상업연합회는 15명의 상회 및 기업이 대표로 고찰단을 조직해 도문시에서 고찰 및 상담 활동을 전개했다.

투자상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도문시 도시 선전 영상을 시청하며 도문시의 발전 면모와 잠재력을 전방위적으로 료해했다. 도문시는 투자 환경과 기업 혜택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변경 마을 합작 대상과 특색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추천하면서 연변 변경지역의 풍부한 자원 우세와 합작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장춘과 연변 두 지역의 공상업연합회, 상회 및 기업이 대표들이 대상 합작, 산업 연계 등 내용을 둘러싸고 열띤 교류를 진행했다.

활동 기간 고찰단 일행은 도문시 량수진과 월청진을 방문하여 길림 성두만강제약유한회사, G331 ‘일생일세’ 월청만 대상, 도문시 량청 활동 기간 장춘시공상업연합회는 15명의 상회 및 기업이 대표로 고찰단을 조직해 도문시에서 고찰 및 상담 활동을 전개했다. 일행은 현장에서 여러개 협력 의향을 달성했다.

이번 활동은 ‘흥변’과 ‘부민’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워 민영기업이 변경산업 육성, 소비 부추, 농산물 판매 조력 등 민생 분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찰단 성원들은 “연변은 정책적 혜택뿐만 아니라 창업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 연변 기업과 손잡고 장춘 민영기업의 우세를 발휘하여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변넷

图说 我们的价值观

#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